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14,

로마서 14장 1-15:12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4회기 로마서 14:1-15:12 입니다.

로마서는 이웃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로 로마서 전반부를 정말 좋아하는 전통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서로를 대하는 방법 때문에 로마서 후반부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 전체를 썼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한 후, 그분께서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의 관습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말은, 이것은 그가 말한 도덕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관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장에서는 밤에 놀러 나가서 술을 마시고 떠들고 자고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습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서문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특히 로마서 14장은 유대인의 음식 관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만 Paul은 두 가지 모두에서 동일한 주장을 사용합니다. 그는 실제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후 곧바로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 문제들은 그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할 때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고 보자. 그러나 그는 3절과 10절에서 금식하는 자들이 먹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먹는 사람은 금욕하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여기서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것을 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심판에 대한 그의 경고는 14:3, 4, 10, 13절에 나옵니다. 크리노와 그 동족어인 이 언어는 카토 크리노에서 많이 나오며, 바울의 서신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 1절과 3절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코셔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코셔를 지키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무례한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었다면 그 종을 책망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썄, 하나님께 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에게는 동료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노예라는 용어인 *doulos*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케테스와 같은 것입니다.

집안의 하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포함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라 법의 정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윤리의 핵심 문제는 남아 있지만 신약성서에도 많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살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되는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

그러나 신약성서에서도 많은 세부 사항은 우리가 본 것처럼 특정 문화, 머리 덮개, 거룩한 입맞춤 또는 그리스 수사학 장치에 대한 상황화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일에 관해 여담을 설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음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널리 퍼져 있는 원칙이지만 성일에 대한 여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음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축제를 떠올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짜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8~9일마다 장날이 있었고 로마인들은 불길한 날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축제도 있는데, 그게 이 맥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맞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대인 축제의 적절한 준수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는 에세네파처럼 양력을 지키는 자들과 음력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교제를 깨뜨리곤 했는데, 그것이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깨뜨린 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부활절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일랜드 교회는 로마의 지도력 아래 있기 전에 실제로 로마 교회와는 다른 날짜의 어떤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폴, 당신이 방금 이방인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면, 음, 이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별로 인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그것에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는 유대인 축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안식일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로마 이방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유대인의 안식일을 존중하는 일부 동조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꼭 유대인 회당에 참석할 필요도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것은 그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확실히 그들은 개종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몇 가지를 배웠으며 유대인의 안식일을 존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관심이나 동정심을 표시하기 위해 등불을 켜습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기대했습니다. 출애굽기 31:35, 예레미야 17장, 에스겔 20장. 구약에는 안식일에 관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은 십계명 중 하나이고 나머지 십계명은 모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다르게 대하는 유일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를 어기는 것이 실제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언급된 것이지만, 특히 그것이 중범죄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8절에서처럼 하나님의 가치관에 충실한 이방인들은 이 외국인과 내시들이 내 집에서 내 동족보다 더 나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덕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열거한 방법 중 하나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 전통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안식일 이방인, 안식일 고임(Sabbat Goyi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불을 켤 수 없지만 제게 와서 저를 위해 불을 켜주는 이방인 이웃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죠. 그러나 이 기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미슈나, 사해 두루마리, 이방인들은 어쨌든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내 말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출애굽기 20장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창조 중에 세우셨다는 것이 창조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의 모델, 즉 창조의 예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들 자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물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마치 7년에 한 번씩 땅에서 쉬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같은 원리로 윤작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분명히 창조와 사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어 많은 것들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계속 활동하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도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서 그는 안식의 의미를 놓고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그의 제자들이 이삭 이삭을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곡식을 꺼내서 껍질을 벗기거나 손으로 맷돌로 찌는 일을 그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안식일은 축하하는 날이지 굶는 날이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일부 대담자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안식일에 접근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는 안식일을 파괴하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을 보면 그가 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대화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주장을 펼침으로써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는 이것이 실제로 법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적인 주장을 내세워 대응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 중에는 인자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로 안식일을 폐하였는가? 제 생각에는 복음서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과 12절에서 안식일 여행과 함께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당이 모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교회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성서에 갖고 있는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0장을 인용하면서 일요일에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아마도 밤새도록 진행되는 일요일 저녁 모임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일요일 저녁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주일의 첫날에 자금을 저축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교회가 모이는 날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1세기 교회가 이미 첫날에 모임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에 대한 증거가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주의 첫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주일에 관해 말할 때 아마도 일요일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들 중 어느 경우에도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안식일에 관해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맥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은 2세기입니다. 음, 바나바 15장은 종말론적인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2세기 초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9.1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대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 이전에 디다케(Didache)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해야 할 방식입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주일과 달랐습니다. 결국 일요일은 로마 제국의 교회 전통에서 기독교 안식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콘스탄틴 이후 일요일은... 콘스탄틴, 그것은 정치적 쿠데타였습니다. 내 말은, 오늘은 태양 숭배자들을 위한 태양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었습니다... 음, 이것은 로마제국 전역에 걸쳐 확립되었습니다. 초기 에티오피아 교회 역사에서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까지 결국 에티오피아 교회 역사상 토요일과 일요일을 둘 다 지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매일을 한다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요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만약 여러분이 후기 교회의 신학 발전을 권위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교회 전통 출신이라면, 여러분에게는 그 날이 일요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교회 전통에서 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직접 얻고 후기 교회 전통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이 성경과 모순된다면 토요일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너무 바빠서 하루도 쉴 시간을 갖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발견한 것은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읽었던 기사에서 조용한 토요일에 대한 사례에 대해 읽었는데, 그 기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란 법은 더 이상 일요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토요일을 원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치자.

하지만 요점은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한 것 중 일부는 성경에서 본 것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의 날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는 매우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만큼 바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은데 24시간 동안 따로 떼어 놓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좋아요, 그 전에는 한 주의 스트레스가 다음 주의 스트레스로 넘쳐흘렀지만 그것이 회로 차단기처럼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의 스트레스가 끝까지 지속되다가 일을 그만둬도 여전히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아, 이 일을 그만 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주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지난 주의 스트레스를 그 안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종의 차단기라 과부하가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마지막에 약간의 시간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음, 안식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실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이방인 종들과 일꾼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니면 오늘이 어느 날인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매일을 똑같이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한 사람이 어느 날을 존중하고 나는 어느 날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한 사람이 언젠가는 영광을 누리고 나는 평생 주님을 존경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모든 것이 주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덜 종교적이게 되거나 하나님을 덜 존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더욱 종교적이 되고,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아니면 안식일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은 유월절이나 부림절과 같은 유대인 구원에 관한 축제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유대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방인들은 그 역사를 동일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의 상속자라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릅니다. 대부분 일요일에 보관합니다. 아내와 저는 사실 다른 날에 쉬지만, 둘 다 하루씩 쉬어요.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쉬는 날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게 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지켰고 아마도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 중 일부를 여전히 준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와 그의 교회는 이러한 축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최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는 유월절을 암시하며 고린도인들이 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과 16절에 그는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빌립보나 드로아에서 특정한 날을 무교병으로 지냅니다. 어쩌면 드로아, 아니 어쩌면 빌립보에서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러한 축제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도 그 중 일부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20장과 16절에서 오순절에 대해 보면 그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는 원래 유월절에 맞춰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금식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 이 제안은 실제로 음식의 맥락에 부합하므로 그는 일탈하지 않습니다.

여담은 고대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아마도 그는 금식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은 속죄일인 욘 키푸르(Yom Kippur) 외에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동안 금식을 지켰다고 적어도 20세기 초 아브라함스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아마 건기에만 그랬을 텐데, 건식 단식을 해서 신장에 별로 좋지 않은데, 일주일에 이틀은 건식 단식을 합니다.

내 생각에 Tractate Anit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성전에서 한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내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합니다. 글썄요, 8장과 1절에 나오는 디다케는 아마도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의 작품일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믿지 않는 유대 민족,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민족을 지칭하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주님께서는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고 대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것은 빠른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은 서로 다릅니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요,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분열할 필요는 없다고 Paul은 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그 날을 지키든지 지키지 아니하든지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9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밝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표준 관행이었고 기독교인들도 이를 계속했습니다.

전통적이고 표준이 된 음식에 대한 유대인의 축복은 땅의 빵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식사 위에 축복하시는 두 가지 구성 요소인 포도주 위에 복이 있나이다였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느님,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다른 하나는 땅에서 자라났어야 했습니다.

자, 고전 14:7,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속한 주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 방식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 그러한 차이점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차이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4.9,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산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 된다는 개념은 사도행전 10장 4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글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이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상황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 즉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23절에서 종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 당시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던 방식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나에게는 그 사람처럼 자기 개인의 일을 돌보지 않고 오직 주의 일만 돌볼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주님을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Paul이 그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할 때 과장된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Cicero는 추천서에서 종종 "나에게는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고이다. 글썄, Cicero는 그의 편지 중 13권에서 아주

훌륭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Atticus에게, 아니, 아마도 그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일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아주 잘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한 번 이상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실제로 주님의 일만을 좋아하거나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기껏해야 디모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을지라도 매우 드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관심이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관심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과 관련된 것, 비록 당신이 그것을 위해 죽어야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에게는 음식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14장 10절. 이것은 헬라어 단어 베마입니다.

이것은 로마 포럼의 연단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에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고린도 포럼이 로마 포럼을 모델로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에 대해 말하고, 바울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는 베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베마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거기서 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베마 앞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하시므로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요점은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 장소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그에게 맡겨야 한다. 제임스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여 그는 앞서 필라델피아, 형제애, 형제자매애에 대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에서는 형제와 같은 복수형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남성이라면 남성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 명의 남성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인 경우에도 남성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리스어로 형제라고 말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형제 자매, 동료 신자 모두를 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에 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때때로 형제들을 법정에서 데려가기도 했는데, 특히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누가 나를 이 일의 중재자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탐욕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여러분의 영적 형제자매들에 관해 말할 때, 형제는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더 넓은 사회에서도 그것이 일어났을 때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던 일입니다. 비록 고대 법정 연설을 읽어보면 꽤 자주 일어났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45:23은 로마서 14:11에서 이 내용을 인용합니다.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그럴 것이며 바울이 여기에서 따르는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이 본문을 예수님에게 적용했는데, 이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적용된 신성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4:13장. 그리고 이 생각에 대한 그의 근원은 물론 야고보의 이 생각에 대한 근원도 아마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일 것입니다.

복음학자들이 볼 때 대다수의 복음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서로가 아닌 공통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마태복음 7:1과 누가복음 6:37이 공통 소스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미 유통되고 있던 소스였을 겁니다.

글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이미 바울의 글이 유통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출처의 날짜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40년대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Gareth Tyson은 열정 이야기와 그 자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회의적인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예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은 같은 이상을 반영하고 서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그는 크리노라는 용어의 다른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판단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며 형제나 자매를 걸림돌로 여기지 말라. 17절에서 그는 음식, 부정한 음식,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음식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의는 그가 1장 17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이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특히 2절부터 4절까지는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3절. 외적으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이러한 의로운 특성을 살아내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입니다.

평화. 글썬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는 평강이 단순히 평온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여러분의 신경계를 조용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 평안의 측면에서 평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14, 19절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로마 교회의 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율법에 관한 일부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16:17과 18의 결론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그 점을 언급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평화. 성령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이끄십니다.

바울이 12장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서로 화평을 가져옵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와 감정을 구별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 중 일부는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로 감정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시편에서는 기쁨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소리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52절에서 성령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그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할 때 사랑을 먼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14절 등의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두 번째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Paul의 목록에서 꽤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9장에서 내가 마음에 계속 근심이 있다고 말한 바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슬퍼할 때가 전혀 없고, 우리가 슬퍼할 일이 전혀 없으며, 슬퍼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너머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표현됩니다. 나는 여기에서 로마서 주석을 다시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시간을 절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시간이 좀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인가를 인용할 때마다 제가 인용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해야 합니다. 고소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논평조차도 대개 출판사가 저작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친절해야 합니다. 어쨌든, 율법의 정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23절), 음식에 대한 논쟁보다는 성령 충만한 품성으로(로마서 14장 17절) 그리스도를 가장 적절하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14장 18절).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왕국에 관해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마가복음 1장 14-15절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내용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이다. 그리스어 바실레이아(basileia) 와 히브리어 makut(마쿠트) 는 특별한 통치를 가리킨다.

내 말은, 때때로 사람이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이며, 왕국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그렇게 번역된 용어들은 통치, 통치, 권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신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표현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앞의 악덕 목록과 대조되는 덕 목록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문맥 에서 율법의 행위 , 곧 육체의 행위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성령의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법은 없습니다.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통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우리가 미덕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미덕을 따라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의 원칙. 그리고 당신은 그 이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처럼 당신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섬기도록 창조된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19절에서는 20절의 허무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글쎄요, 세워가는 언어는 바울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다른 사람의 기초를 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15:20. 고린도전서 3:9에서는 건축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언어를 자주 사용하여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주 사용되었던 구약의 언어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은 심고 뽑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들을 뽑으시고 헐어 버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분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더 일찍 사용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롯기에서 하나님께서 후손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바울은 오늘날과 그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위해 우리가 서로 세워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는 20절에서 말하고 디도서 1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20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되 남을 걸러 넘어지게 하거나 배교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는 고기와 포도주도 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언급했듯이 그들은 로마의 정결한 정육점이고 그들이 무언가를 붓는 이교도 신주에서 와인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와인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해방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구약성서 빌립보서 2장, 디모데후서 4장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교 신에게 붓지 않는 한 포도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도 채식주의자가 될 것 같다. 나는 내 형제나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서 와인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세기와 20세기 미국과 그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9세기 후반 당시 그들은 와인을 증류하는 방법을 배운 후 와인을 자연 상태보다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와인, 심지어 맥주조차도 사람들은 아주 쉽게, 아주 빨리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에 대해 그들이 얻은 모든 것을 소비하는 많은 남자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서 배우자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이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고, 남성들은 거리에서 이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에는 구세군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미국에는 거리 선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을 먹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거리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운동은 대부분 밀레니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운동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일은, 술취함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피해, 알코올 중독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는 마약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당신은 그것을 조직적인 범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완전히 기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이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노스는 포도 주스를 뜻할 수도 있는데 연회를 맡은 사람이 그 뜻이 모든 사람의 감각이 둔해진 후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최고의 포도주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요. 알다시피, 그때가 최악의 와인을 제공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와인입니다. 아마도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 외에 다른 것이 있었음을 시사할 것입니다. 좋아,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 실제로 발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효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특정 자연 수준 이상으로 발효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정 자연 수준을 넘어서면 식초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것이 발효되는 것을 전혀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주 추운 곳에 땅에 묻어 잠시 동안 보관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특정 수준의 발효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실 때에도 정기적인 식사를 할 때 물을 다양한 양으로 마십니다. 가장 일반적인 평균은 아마도 와인의 모든 부분에 물의 두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취하기 전에, 내 말은, 당신이 그렇게 많이 마셨다면, 그렇게 하기 전에 화장실에 아주 많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미국식 표현입니다. 술에 취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싶을 때 특별히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비싼 액수를 그대로 제공하거나 가끔 취하고 싶은 그리스 연회에서 다른 환각제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히 물에 많이 들어 있는 물을 그냥 생수처럼 마시지 않는 것이 소화에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보통 Tums를 사용하지만 과도한 칼슘 축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야. 그래서 나는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걸림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매우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자, 내가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환경에 있다면, 또는 여러분이 문화 간 환경에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몇몇 친구들이 나에게 말해주었던 어떤 동물의 눈알이 요리되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해서 먹지 마세요.

이제, 단지 당신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습니다. 제 아내는 중앙아프리카 콩고 출신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한 곳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고 그들은 그녀를 위해 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에는 생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굴로 무엇을 하게 된다면 굴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레몬과 함께 넣으면 레몬이 굴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갈 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못 먹겠다고 하더군요.

내 생각엔, Nadine, 당신은 호스트가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할 때 거절함으로써 당신이 호스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음식도 준비했는데 괜찮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것은 단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에 미국에서 이 논쟁을 벌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비트가 있으면 그건 악마적이다'라고 말하더군요.

그건 과장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 음악은 악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음반, 현대 기독교 음반을 불태우고 있다고 말했고 그는 악마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기 때문에 환각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동시에, 이것은 우리 세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제자를 삼는 일 등을 돕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무엇이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상하게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을 깊이 화나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상으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22절) 당신의 형제나 자매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23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전 14:23, 믿음으로 좇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나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교파, 교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온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A부터 Z까지, 재림교회, 하나님의 성회부터 Z로 시작하는 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성적인 사람들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언급되어야 합니다. 좋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좀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다른 것보다 특정 종류의 교육적 맥락에서 더 쉽습니다. 우리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과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만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1423년에 믿음에 대한 강조로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세한 것에 집착하여 점점 더 염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대한 강조로 돌아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글썄, 원문에는 실제 장 구분이 없으며 15:1과 2에서 그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의 다른 한 곳에만 등장하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의 요약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15:1과 2는 진행되는 일에 대한 절정의 요약이나 권고를 제공합니다. 고대 문헌에는 절정의 요약이나 권고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나는 전에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는 로마서 14장에 대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나온 내용의 요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괜찮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15장과 3절에서 이 일을 하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것을 주려 오셨습니다. 생명은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한 대속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그분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과 64절과 65절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동안에도 그를 거짓 선지자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그 조롱을 묘사하면서 바울은 시편 69편과 9절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시편 69편을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의로운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도 적용됩니다. 그 시편은 마태복음 27장 34절과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섭리는 시편의 세부사항 중 일부까지도 성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한 해석학을 4절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려고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언급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성적 부도덕을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를 위해 모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 고대 전기 작가들이 명시적인 목적 중 하나를 자주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고대 역사와 전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좋은 예, 하지 말아야 할 예 등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점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때로 성경 학자로서 우리는 매우 무미건조한 방식으로 본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몇몇 구절, 성경의 전체 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적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구원의 역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대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부모님은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이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되지는 않았고 단지 내 인생에서 교훈을 준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여기서도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나 격려를 가져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과 같이 성경을 언급하는 언어에서는 위로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적어도 4번 언급합니다. 또는 마카비후서 15:9, 위로, 격려, 권면, 파라클레시스. 바울은 이러한 격려를 성경에서 무엇으로 암시합니까? 다음 절에서는 화합을 촉구합니다(5절).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화합은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금 14장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치는 비록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결을 요구하세요. 이제 일부 차이점은 매우 심각하므로 수정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결국 신학적인 오류라면 결국 버섯처럼 생겨날 수 있고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전히 서로 대화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정말로 심각한 오류에 대해 경고하는 텍스트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하고 몇 번 경고를 해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정말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기본적인 성경윤리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에 나오는 연합을 위한 이 요구는 지금까지의 로마서 메시지의 절정에 이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구분을 초월해야 합니다. 화합은 일반적인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연설가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한 전체 에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언어 중 일부는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 중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론 그리스어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의 비슷한 개념을 번역한 칠십인역에도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 출애굽기 24장, 한 목소리로. 그는 이 연합이 사랑과 함께하는 예배로 표현된다고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단결은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점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15장과 7절). 자,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14장 1절과 3절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몇 구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궁극적인 모범, 즉 예수님의 궁극적인 모범에 다시 호소합니다.

나중에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편지는 제가 바울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에베소서 4:32~5:2).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섬겼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며, 로마서에서 이전에 할례에 관해 이야기한 문맥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십니다. 그는 할례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조상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7절에서는 11장과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조상들, 족장들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조상들을 위하여 할례를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이방인들을 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범을 따라 여러분은 두 가지 모두를 섬깁니다.

여러분은 인종과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9절부터 12절까지 이에 대한 성경적 뒷받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전에 바울이 다른 성경 본문을 연결하는 곳을 보았고 여기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 사이의 연결, 이 본문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이방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체 정경의 예를 제시합니다.

그는 다른 예, 추가 예도 제시할 수 있었지만 기록물과 율법과 선지자의 예를 제시했습니다.

15장 9절에서 그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합니다. 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이 사람이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가들이 복종하는 다윗의 광범위한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5편 9절을 인용합니다.

15장과 10절에서 그는 신명기 32장을 인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10장 19절과 12장 19절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다시 성경의 문화적 배경 연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 구절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도록 초대합니다. 15장 11절에서 그는 시편 117편과 1절로 돌아갑니다. 제가 시편 118편을 많이 인용했는데, 시편 117편 역시 할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편 중 가장 긴 시편 119편과 달리 이 시편은 가장 짧은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들이 그를 찬양하게 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12절입니다.

글쎄, 이것은 확실히 메시아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종이셨지만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종이셨고 모든 민족을 위해 봉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4회기 로마서 14:1-15:12 입니다.